

# 반도체 끌고 자동차·방산 밀고… 다음 순환매 주도는

코스피 ‘꿈의 5000 피’ 시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달새 40%선 급등

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바통 받아

“장기적 우상향 전망…소비재·유통도 기대”

역사적인 ‘오천피’ (코스피 5000p) 달성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원전·방산 등 다른 대형 주도주로의 순환매 장세를 통해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것이 주요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미국 기술주 약세로 반도체주가 ‘숨 고르기’를 하자 여타 대형주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코스피가 내려갈 틈을 주지 않았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지수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50초께 전장보다 1.89% 오르며 5002.88을 기록, 꿈의 지수로 불리는 ‘오천피’를 넘어섰다.

이후 5019.54까지 올랐던 지수는 장 후반 오히려 둔화해 42.60p(0.87%) 오른 4952.53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거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일 10만800원

에서 지난 7일 14만1000원으로 39.9%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53만8000원에서 74만2000원으로 37.9% 올랐다.

그러나 고점 부담에 글로벌 증시의 반도체주 조정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는 8일 1.56% 하락했고 9일 0.14% 올랐다가 12일과 13일 각각 0.14%와 0.86% 떨어지는 등 단기 조정을 맞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8일에 1.89% 올랐지만, 9일 1.59% 하락하고 12일 0.67% 올랐다가 13일 다시 1.47% 떨어지는 등 74만원선에서 횡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35.75%에 달하는 만큼 통상 두 종목이 하락하며 코스피도 약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종목이 동반 하락했던 13일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1.47% 상승했다.

이처럼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대신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주도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차그룹은 이후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다.

지난 6일 종가 대비 이날까지 주가 상승

률은 현대차 71.7%, 현대모비스는 23.9%, 현대글로비스는 40.0%, 현대오트에는 49.2%를 기록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이달(2~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3%), 항공우주산업(41.9%), 한화오션(20.1%), 현대로템(6.8%)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원전주

와 건설주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에서 다른 주도주로 돌고 도는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조선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견고한 성장 사이클을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과대 업종 중 한증관계 온도 변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필수소비재, 유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도체에서 바이오와 같은 소외주 혹은 조선, 방산, 자동차 등 여타 주도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공약 달성 이 대통령, ETF 수익률도 ‘대박’

코스피200·코스닥150 추종 상품에 투자…최소 3100만원 평가의 추산

코스피가 22일 장 중 5000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대박이 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 ETF 상품 4000만원여치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여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내ETF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 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적립식으로 ‘TIGER 200’ ETF에도 투자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직전 거래일인 21일까지 수익률은 103.27%다.

‘KODEX 코스닥150’은 같은 기간 31.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같은 기간 104.33% 상승한 ‘TIGER 200’의 성과를 더하면 평가 이익은 어림잡아도 3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18일 종가 기준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이 116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4%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당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p

(1.40%) 오른 3461.30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며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이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5일 300조원을 돌파했다.

당일 종가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303조5794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어 약 7개월 만에 3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ETF 순자산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325조335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투자자 예약금도 21일 기준 96조3317

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초부터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전개 중”이라며 “외국인 수급과 이익 모멘텀(동력)의 조합이 랠리의 근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이익 성장이 뒷받침됐던 강세장(2007~2008년, 2020~2021년) 당시 12~13배 레벌까지 레이팅(재평가) 됐다”면서 “현재 강세장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작년 상승률 1위…올해도 17% 독보적 선두

지난해 75% 넘게 오르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도 17%가량 오르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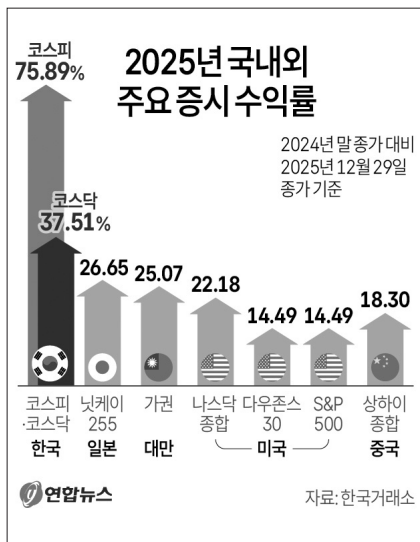
이에 증권가들은 잇따라 올해 코스피 밴드(범위)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은 전년 말 대비 75.6% 기록하면서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코스피 상승률은 2위인 칠레(57%·29일 종가 기준)를 크게 웃도는 ‘압도적’ 수준이었다. 일본은 27%, 중국은 18%, 미국은 17%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의 질주는 독보적

이다.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20일 하락했으나 21일과 22일 다시 오르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



(5000p)를 달성했다.

뉴질랜드 13.54%, 튀르키예 13.02%, 대만 9.93%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6.79%,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44%였다.

연합뉴스

## 소액연체 다 갚은 292만명 ‘신용사면’

“대출·카드발급 가능”…개인 신용평점 평균 29점 올라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집 업종에서 신용회복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추가 특별감사

41명 투입…3월 결과 발표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가

를 포함해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고, 오는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 1.0%…4분기 역성장

건설·투자 부진 성장세 둔화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인해 아쉽게 1% 성장에 그쳤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인 1.0%에 부합하지만, 2024년 2.0%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출에서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수출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등이 증가됐다.

경제활동에서도 건설업 감소세가 커

지고 제조업 증가세가 축소됐지만 서비스업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GDP에 대한 지출항목에서는 2025년 기준 전년대비 민간소비 1.3%, 정부소비 2.8%, 설비투자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9%, 재고증감 0.5%, 수출 4.1%, 수입 3.8% 증가하고 건설이 9.9%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같은 기간 농업업이 1.4%, 제조업이 2.0%, 서비스업이 1.7% 증가했지만 건설업이 9.6%, 전기·가스·수도사업이 0.6% 감소하면서 부진을 보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7% 증가해 GDP성장률을 상회했다.

연간 GDP는 성장한 반면,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한은은 3분기 높은 성장률(1.3%)에 다른 기저효과와 관세부와 품목 중심의 수출 둔화로 4분기 성장률을 0.2%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0.5%p나 낮게 기록됐다.

이는 2022년 4분기(-0.4%) 이후 3

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확대 영향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반면 투자 부문은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하면서 3.9%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7.4% 급감했다.

연합뉴스